

종류개량,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사항

김찬규/역촌동물병원 사슴클리닉 원장



김 찬 규
역촌동물병원 사슴클리닉 원장

현재 우리의 양육업은 IMF 이후 계속적인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본적으로 양육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생산된 생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양육업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슬기로운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우리의 양육시장은 개방화 되어 있고 이미 녹용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뉴질랜드를 비롯한 양육대국들과 경쟁을 통해 살아남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에 살고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국산녹용을 차별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생산성 제고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유전적 개량과 한국적 사양관리를 통해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양육업이 녹용생산이 주목적임을 감안할 때 녹용의 생산량을 높이고 녹용의 질적 우수성을 가진 품종으로의 개량이 시급하며, “국산녹용”하면 모두 양질의 녹용으로 평가받고 수입녹용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개량을 추진하여 한의업계에서 선호하는, 즉 우리 선조들이 선호하였던 “원용(元茸)”을 생산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듯 차별화 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생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와 또 약재로 사용하는 한의업계에 홍보하며, 진정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국산녹용을 생산해 낸다면 자연스럽게 국산녹용의 판로는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사슴의 개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전적 개량인 육종사업이 필요하며, 우리의 사육 목적과 부합되는

우수한 형질의 사슴으로 개량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수한 유전 능력을 갖고 있는 종록의 선발과 선발된 유전 인자를 확산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인공수정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정액을 채취하는 종록의 선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녹용 생산량만 많다고 종록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후손에서도 계속 녹용생산량이 높은 사슴을 생산해 내는 유전력이 있어야 한다.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유전력 평가는 당대에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후대축을 생산한 사슴들의 능력을 검정하여 유전력을 평가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개체 자신의 유전적 효과는 아비와 어미로부터 전달받은 유전자에 의하여 결정되며 따라서 개체 자신의 유전 능력을 자손에게 얼마나 우수한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전 능력이 있는 우수한 수사슴과 암사슴을 가려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고 1~2년 안에 모든 것을 끝낸다는 생각을 버리고 인내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전 능력이 우수한 암사슴과 수사슴을 확보하고 이들을 교배시켰을 때 반드시 우수한 능력을 소유한 자록이 생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인공수정은 종록개량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녹용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는 자손들을 많이 생산하여 결국 우리나라 사슴 집단에 녹용생산성 향상에 관계되는 유전자를 지닌 사슴의 두수를 많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국양록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여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며 질적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양육인들은 나만이 좋은 새끼를 생산하여 높은 값에 분양하겠다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모든 양육인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고 국산을 차별화하여 수입산을 멀리하고 국산만을 선호하는 시대를 만들도록 함께 정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양육**